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

손영석

현시기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에 대하여 잘 알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45~46페이지)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의 기본내용은 무엇보다먼저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그에 의거하여 경제강국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것이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한 나라인것만큼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지고 경제강국건설을 진행해나가야 한다.

우리의 경제강국건설은 그 누구도 결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이다.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조건에서 경제강국건설도 다른 나라와 민족이 대신해줄수 없으며 오직 우리 인민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진행해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가 믿을것이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우리 나라가 통일되고 강대해지며 잘살고 흥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자력자강의 정신을 틀어쥐고나가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여 경제강국을 우리의 손으로 세상에 보란듯이 일떠세울수 있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인것만큼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경제강국건설을 진행해나가야 한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징표로 된다.

경제발전은 생산의 빠른 발전에 의하여 보장되며 생산의 빠른 발전은 생산력발전에 의하여 담보된다.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과정은 곧 사람의 창조적능력을 높이고 로동도구를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되며 이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담보된다.

자연을 개조하는 사람의 창조적능력은 경험과 숙련에 의하여 높아질수 있지만 기본은 과학기술에 의하여 높아지게 된다. 과학기술은 자연을 개조하는 사람의 창조력의 가장 필수적인 구성부분이다. 생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람이므로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하여야 사람의 창조력을 높이고 생산력을 발전시킬수 있다.

생산력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로동도구의 발전도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기술은 과학을 실천에 응용하기 위한 지식과 함께 그것이 체현되어있는 물질적 수단들을 포함하고있다. 그러므로 로동도구의 발전은 과학기술에 의해서만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 지난 시기 석기시대가 수백만년의 오랜 역사적시기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것도 과학기술이 뒤떨어져있었던것과 관련되어있으며 오늘 컴퓨터와 같은 정보설비가 출현하여 지식경제시대가 펼쳐진것도 과학기술의 발전의 결과이라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시대는 정보설비에 의거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이 진행되는 고도로 과학화, 정보화된 지식경제시대이다. 정보설비는 사람의 두뇌기능의 일부까지 대신하는 첨단설비인것만큼 이러한 설비는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이는 창조될 수 없다.

첨단설비에 의하여 생산이 진행되고 경제발전에서 첨단과학기술의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발전하는 경제강국은 지식경제강국으로서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 때에만 성과적으로 건설될 수 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만 사람의 창조력을 높이고 로동도구를 개선함으로써 나라의 생산력을 높은 수준에 끌어올려 경제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할 수 있다.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의 기본내용은 다음으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것이다.

주체적인 원료, 연료, 동력기지를 꾸리는것은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보장하는데서 관건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는것은 현시기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보장하는데서 중핵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여야 나라의 경제를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로 건설할 수 있으며 그 어떤 경제적과 동에도 끄떡없이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에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원료와 연료를 국내자원으로 보장하는 생산기술공정을 확립하며 첨단설비를 비롯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기술수단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자체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현대적기술에 토대하여 기초공업부문의 주체화수준을 높이고 나라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며 원유를 비롯한 중요자원들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에너지기생산을 경제장성에 확고히 앞세우는 방향에서 동력기지건설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수력을 위주로 하면서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합리적으로 배합하고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높이며 다양한 자연에너지원천을 적극 리용하여 국가적인 에너지수요를 자체로 충족시켜야 한다.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에너지기생산방식을 개선하며 나라의 경제를 에너지절약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물질적수요를 국내생산으로 보장할 수 있는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고 부단히 개선완비하는것은 인민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기술수단과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것이다.

현시기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인민경제를 정보화하는것이다. 인민경제의 정보화는 현대화의 높은 단계이다.

물질적부를 창조하기 위한 생산기술공정, 생산물의 유통과정, 화폐자금의 운동과정, 경

제관리 등 모든 경제활동과정이 정보적과정으로 전환될 때 인민경제의 정보화가 실현되었다고 말할수 있다.

경제활동과정이 정보적인 과정으로 전환되게 하자면 정보자원이 준비되고 기관, 기업소들의 기술수단들이 정보설비로 장비되어야 하며 정보봉사를 제때에 실현할수 있는 정보통신망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새 세기 산업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경제전반을 현대적기술로 개건하고 모든 부문을 첨단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 통합생산체제와 무인조종체제를 확립하고 룝색생산방식을 비롯한 앞선 생산방법을 받아들이며 중요한 경제기술적지표들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고 부단히 개선해나가야 한다.

인민경제를 과학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을 과학화하며 경영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하는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높은 과학적도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하여서는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하부구조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모든 부문에서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과 기술, 지식이 생산을 주도하는 경영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과 기술관리공정을 개발창조형으로 전변시켜야 한다.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의 기본내용은 다음으로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것이다.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생활과 문화생활에서 표현된다. 경제생활은 노동생활과 물질생활로 이루어져있는것만큼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과 노동생활 및 문화생활에서 나타나게 된다.

유족한 생활은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서 근심걱정을 모르고 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소비품을 풍족하게 쓰며 사는 생활이다. 사람들이 생활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사는것이 유족한 생활이다. 여기에서는 지불능력있는 수요가 생활적수요에 접근하며 소득이자 수요이고 수요가 그대로 소비로 이어진다.

사회적인간의 본성에 맞는 유족한 생활은 착취계급들의 부유한 생활, 호화방탕한 생활과는 구별된다. 자주적인간이 누리는 유족한 생활은 자주적인 노동생활과 결합되어있다. 완전한 노동조건에서 험하게 일하면서 풍족하게 사는것이 유족한 경제생활이다.

문명한 생활은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생활이다. 사람들이 정신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면서 조화로운 정신문화적발전을 이룩해나갈 때 문명한 생활을 누린다고 할수 있다.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자면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생활에 직접 복무하는 부문들의 발전을 중시하고 근로자들에게 훌륭한 노동생활조건과 물질생활조건을 마련해주며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을 확대하여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기어이 인민의 만복이 꽃피는 천하제일 강국을 일떠세워야 할것이다.